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09년도 표어 ⊗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교회설립18주년 감사주일 · 추수감사절 축하 메시지

내가 건너 온 기드론



다윗 왕이 건너간 기드론은 눈물의 골짜기였다. 차라리 원수에게 쫓기는 길이었다면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버리며 절치부심(切齒腐心)이라도 하겠지. 하지만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이고 보니 가슴이 메어 질 뿐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기드론은 찬미의 골짜기였다. 복에 겨워서가 아니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폭도들로부터 체포되기 직전, 위급하기가 바람 앞에 등불 같아서 흥겨운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은 마치 결 혼식장으로 향하는 신랑처럼 노래 부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 주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아버지는 이를 위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완성되는 그의 죽음은 최대의 승리이며 성공이다.

실패와 고독, 아픔과 서러움의 골짜기를 우리도 건너왔다. 자신이 저 지른 죄값으로 건너야 할 기드론이라면 다윗처럼 울면서 건너야 한다. 죄인이 통회의 눈물조차 인색해 함은 죄 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건너야 하는 골짜기라면 주님처럼 찬미하고 건너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나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우리의 눈물로 세워주신 서울교회를 인하여 감사하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에게 올해에도 자연은총을 변함없이 허락하사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자.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려고 기둥같은 일꾼을 세워주시고, 복을 땅 끝까지 전하시려고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계절이 되게 하자.

목사 이 중 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신임장로에게 드리는 권면의 글

고개 숙이는 것에 열심을



김광신 장로(12교구)

오광환 장로님, 서울교회 장로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문의 영광이 기도 하지만 장로는 영광만으로 사는 직분이 아니기에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처음 장로가 되면 전교인의 시선이 나에게 쏠립니다. 몸 둘 바를 모를 만큼 처신하기에 힘들고 어

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되면 숨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보여지게 되고 알려집니다.

큰소리치면서 뛰어다니고 내가 장로입니다 선전하는 것은 실격이고 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성도들도 장로님을 장로로 모시게 됩니다. 벼이삭은 다 익은 후에 비로소 고개를 숙입니다. 식물도 고개 숙이는 것을 아는데 하

물며 장로 된 자가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고개 숙이는 훈련에 깊이 참여하시고 다 익을 때까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밤마다 골방에서 무릎 꿇고 최상품 장로 되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서울교회의 들도 없는 충성과 장로로 나타나십시오.

선교사 파송을 축하하며

선교모델이 된 서울교회



신방현 목사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고 전하는 서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매년마다 교회 설립기념일을 통하여 총회선교사 파송을 실시함을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함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이기 감사하기도 하지만, 서울교회의 선교사 파송과 관련하여 다른 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후보자들을 선택한 후에 교회사역을 3개월간 참여하고, 서울교회의 선교비전을 공유하며, 선교사와 교우들과 하나가 되게 하고, 보냄을 받는 자나 보내는 자가 힘을 하나로 모아 선교사들이 서울교회의 대표주자로서 선교일선에서 사역을 감당토록 하는 방법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교단선교사역과 한국교회

선교의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잠 25:13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는 선교를 가장 잘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임직을 받으며

기도하고 섬기는 장로 되겠습니다

오광환 피택장로, 이안순 권사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서울교회의 장로로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숙케 하신 이종윤 목사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말씀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신 교역자님들, 충고와 권면으로 이끌어 주신 장로님, 사랑의 기도로 후원해주신 권사님, 허물을 감싸주시고 한결같이 주의 일에 협력해주신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교회에서 큰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 설립초기부터 위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힘을 얻고 교회학교와 교구에서 섬기는 자로 훈련받게 하시며 교회 각 부서에서 함께 봉사하며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교회 사무국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며 미력이나마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영광된 기회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간 목사님들께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과 장로로서 신앙생활에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빚진자 되지 않도록 더욱 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실천하여 교육과 전도와 구제에 앞장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를 나타내기보다 남을 세워주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겸손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심과 다짐이 계속 실천되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내 된 저 이안순 권사는 장로로 임직받는 남편

을 도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며 좀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겨울철 화재 연발연시 도난 예방책을 찾습니다

교회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위험과 연발연시에 유난히 교회에 침투하는 도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규작성에 들어갔다.

지하주차장 관리부터 9층 옥탑 층에 이르기까지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안전관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세운 교회당을 보존하기 위해 사무국 또는 교구 목사께 문장으로 적어 11월25일(수) 오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 파송을 받으며

전파되는 것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는 한국의 훌륭한 서울교회에서 믿음의 지경과 신앙의 깊이와 지평을 짧지만 3개월간 잘 배우고 일본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임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하며 아가페타운을 지어 빈약한 자를 돕는 복음의 길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서울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분명한 목회철학과 뚜렷한 비전과 개인의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렴함의 삶을 일본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서울교회에서 저희 가족은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 갑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과 일본사

역을 위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나라이기에 서울교회 교우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에베소서2:21~22)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교회에서 배우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일본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이사야43:1)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일 교회 교류 협력을 통하여 양국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여 일본 교회들이 전도하고 선교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서울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사도바울처럼 사도행전29장과 30장을 써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샬롬!



허창범 · 현미순 선교사(일본 파송)

진정한 기도에 깊은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파송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실수와 부족함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듬어 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름을 다 밝힐 수 없는 귀중한 성도님들, 이종윤 목사님, 박노철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여러 곳들, 사무국과 비서실, 멀티미디어실, 방송실, 식당, 경비로 수고하신 분들과 여러 선교회와 교육부서 여러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친절과 협력 그리고 진정한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수년간 교제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친절함 미소와 사랑을 보여 주신 분들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셔도 따뜻한 사랑과 도교로 영적 전쟁터에서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선교지에 가셔도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훈련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선교사를 파송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서울교회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



김모세 · 이현나 선교사(동아시아파송)

그리스도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홍남기 · 김인규 선교사(우크라이나 파송)

오래 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모(母)교회에서 봄가을로 30일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마다 교회 의자에서 자면서 설 잠을 자기도 했지만 새벽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개근을 했다는 사실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파송을 앞두고 서울교회에서 잠을 자며 한 주간 특별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그때 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약 3개월의

동역을 통해 저의 기도제목처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월15일 이 행복을 가득 안고 출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이 행복하고, 복음을 전함이 행복하고, 그들과 함께 함이 행복한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김인서 · 현예옥 선교사(아르헨티나 파송)

청년의 때에 선교를 향한 비전의 씨앗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기웠었습니다. 비전은 한동안 잊혀졌고, 현실은 세상이 말하는 안정을 향하여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차근차근 우리를 훈련시켜주셨고, 마침내 불러 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댈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믿었고, 각각의 능력과 관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말고 아무 곳에도 기대지 말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려했던 언덕은 다 치우시고, 뜻밖의 연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교회, 모르고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경험도, 사람도, 배경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선교지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야망도 버리고 두려움도 없애고 인도하시는데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잔뜩 기대하면서 내일을 기다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8)

교회가 도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신명강 · 강사리 선교사(동남아시아 파송)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된 서울교회 선교사 훈련. 이 3개월의 시간은 저희가 장기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온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은혜 가득한 설교를 들려주시는 이종운 목사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싸주시는 부교역자님들, 충성과 화목함이 가득한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할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선교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서울교회의 모습은 아마 모든 선교사들이 흠모하는 파송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필립보서를 읽다가 이러한 구절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내 증인이시니라”. 저희 역시 선교지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사모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주님이 주관하시고, 교회가 도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설립주일을 축하하며

교회설립18주년 · 추수감사절축시

보물섬(Die Schatzinsel)



김명현 목사(익림교회)

‘보물섬(Die Schatzinsel)’이라는 제목 때문에 열광한 것은 오히려 어찝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보물섬’의 환상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9세기의 ‘골드러시, The Gold Rush’가 미국 판 보물섬이었다면 16세기 ‘엘도라

도, El Dorado’는 남아메리카판 보물섬 해프닝입니다. 이것이 어찌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친 유럽인과 미국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저마다의 보물섬을 찾기 위해 인생을 낭비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업인이든, 예술인이든, 젊었던, 늙었던,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저마다 자신의 보물섬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저마다 보물섬의 환상을 쫓고 있습니다.

저마다 보물섬의 신기루를 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

보물섬을 찾아내어 산더미만한 양의 보물을 캐내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보물섬으로 가꾸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서울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선교사들이 바로 이런 비

밀을 가슴에 간직한 자들이라 믿습니다. 보물섬의 환상에 집착하던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진리 안에서 보물섬으로 일구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선교지 현장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로운 보물섬은 없습니다. 섬의 풍광이 아름답다고 보물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볼품 없는 돌섬이라도 그 속에 보물이 파묻혀 있으면 바로 그곳이 보물섬입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거나 볼품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보물섬이 됩니다.

장로임직을 받는 영광한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보물섬으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븐슨의 보물섬(Die Schatzinsel)은 보물을 캐내는 것으로 더 이상 보물섬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보물섬은 생명과 사랑의 보물을 아무리 퍼주어도 변함없는 보물섬으로 존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보물을 소유하는데 있지 않고, 참된 행복은 진리 안에서 자신을 보물섬으로 일구는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교회설립 18주년을 맞이한 서울교회가 캐내어도 다함이 없는 이 시대의 보물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에 목마르고 감동에 배고파하는 현대인들에게 서울교회가 늘 감동으로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교회가 캐내어도 다함이 없는 이 시대의 보물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설립주일을 축하하며

소나무 향기



이규정 목사(대구서광교회)

할렐루야! 설립 18주년과 함께 장로 임직식, 선교사 파송식을 드리게 되신 서울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일꾼들의 모습을 체험하다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서울교회를 떠나왔습니다. 문득 다시 바라보는 서울교회는 제게 신앙의 아름다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 받았던 목회 철학과 삶의 교훈이 제게도 어느덧 습관처럼 배어 있음을 느낄 때 서울교회는 Seoul school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 바라보게 되는 서울교회는 마치 오랜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 온 키 큰 소나무 숲과 같습니다. 소나무에서 풍겨나는 그 독특한 향기는 나무 주위에 모든 잡초들과 해로운 해충

들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신학적 오류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서울교회는 이 땅 위에 그런 해로운 뿌리가 더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교회이며 바른 신학과 신앙을 세우는 교회로서 성장해 온 교회입니다.

서울교회의 거룩한 목표와 순전한 열정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정화해 주는 소나무의 향기와 같습니다

소나무가 만드는 맑은 공기는 마침 많은 사람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서울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목표와 순전한 열정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정화해 주는 소나무

의 향기와 같습니다. 이제까지 건강한 민족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윤 목사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소나무같은 교회로서 아름다운 영적 전통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창한 숲 숲을 이루어 숲을 정화시키듯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더욱 힘 있게 감당하시는 서울 교회로 우뚝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통로에서

윤영남 권사(10교구)

십자가에 들려지심으로 구원의 길 열어 주신 주님!

협약한 세파 밀리다가 찢기고 상처 받은 영혼들 선재하신 영원의 길로 이끌려 쟁기를 든 자 뒤돌아보지 않았나이다.

화려한 봄꽃보다 새순 틔우는 아픔으로 무릎 꿇어 쌓은 기도의 단 거친 폭풍우 비바람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깊게 삼긴 가로수 가지 뻗어 열매 맺어 섬기는 종으로 지친 영혼의 순례자 위해 그늘 되었나이다.

오곡백과 풍성한 타작마당에서 알곡 찾아 천국 일꾼 삼으시는 주님!

등글지 않은 가을열매 없듯이 은유와 겸손으로 말씀 따른 순종 옥합 깨뜨려 향유 바른 머릿결로 열여덟 해 동안 제단에 바쳐지는 순결

새로운 지경 넓혀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 크고 은밀한 일 응답해 주시니 오, 놀라운 비전 오늘 보았나이다. 찬란한 義의 옷자락 은총의 휘장아래 충만한 이 기쁨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성전에 올리는 찬양 승리로 넘치는 감사 여기, 은혜의 통로에서



교회설립주일 및 추수감사주일

주일에배 시간에 성찬식

찬양예배 시간에 제10대 장로 안수식, 선교사 파송식

오늘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서울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설립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올해에도 우리나라에 대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주일에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찬양예배 시간에는 지난 5월 피택되어 당회의 교육을 받은 오광환 피택장로의 제10대 장로 안수식이 거행되고 아울러 2009년 선교사 14명을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을 한다.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김인서 현혜옥(아르헨티나), 김모세

이한나(동아시아), 홍남기 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 현미순(일본), 신광강 강사라(동남아시아) 선교사 등 해외 선교사 10명과 윤왕모(육군 706특공연대 새생명교회),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선교사 등 군선교사 4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이다. 이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불모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된다.

오늘 제10대 장로로 임직하는 오광환 장로와 열네 명의 선교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믿음의 덕을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한다.

도로변 주차안내

지난 9월20일자 순례자를 통해 공고되었던 삼성로 주일 노변주차장 현재 한티공원 앞에서 맞은편 은마아파트 앞 노변까지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도로변에 주차안내 표지가 세워졌다.

성도들은 주일에배 시간에 버스정류장(정류장 표기 좌우 20M)과 진출입로를 피해 주차관리부원들의 안내를 받아 일렬 주차하되 주차안내 표지판에 정해진 지역에만 주차하도록 한다.

감사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24시간 기도 릴레이에 참여하고 태신자를 열매로 바친 이들, 새벽 조찬을 준비하고 안내, 교통정리를 도우신 여러분께 감사,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4일(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총회, 26일(목) 한국로잔위원회, 27일(금) 에딘버러 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한국대회 준비위원회를 소집한다.

■ 임명: 사무국장 / 유태서 집사(6교구)가 11월21일자로 우리교회 사무국장 서리로 섬기게 되었다.

■ 이전: 13교구 김재숙 집사 휴스존(인재파견, 이웃소식 대행) T. 773-1918

■ 개업: 1교구 최창자 성도 커리전문 '델리' (대치점) 대치역 1번 출구 동해빌딩 2층(선경아파트 맞은편) T. 554-7545
13교구 박명자 집사 이탈리아 플레이트(스파게티 전문점) 숙명여대 앞 T.712-2980
13교구 박정순 성도(13교구) 하월라(보석, 시계 예술) T. 3288-4989/한티공인중개사 T. 563-8949

■ 승진: 윤용중 성도(1교구 전혜림 집사 부군) 국방부 법원장(준장)

■ 특남: 송상준 집사 김수연 집사 가정(6교구)

■ 주간식당 봉사: 비보전도회(11.22) 마리아전도회(11.29)

■ 금주의 식사: 김문기 성도 서중숙 집사 가정 (치료 좋은 결과에 감사하며) 교회제공

■ 떡제공: 오광환 피택장로, 이안순 권사 가정(임직을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메시아 연합찬양 연습

-12월20일(주) 찬양대 헌신예배도 함께-

우리교회 찬양대는 주님이 나신 성탄절을 맞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메시아 연합찬양'을 준비한다. 이번 메시아 연합찬양은 12월20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찬양대 헌신예배도 겸하여 드리게 된다.

메시아 연합찬양 연습은 다음 토요일(11/28)부터 오후 4시에 시작된다.

구분	11/28(토)	12/5(토)	12/12(토)	12/19(토)	12/20(주)
지휘자	백경화 집사	류충기 집사	김정훈 집사	임범창 집사	임범창 집사
반주자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를레렘	김현정	김현정
봉사	가브리엘	임마누엘	베를레렘	할렐루야	본당
장소	503호	503호	503호	본당	본당
참고				총연습	

예배 시 성경·찬송 지침

12월부터 예배 시 스크린에 성경찬송을 띄우지 않는다. 개인 성경책과 찬송가를 소지하고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심한 사랑을 긍지로 삼았던 한국교회가 예배 시에 성경찬송을 스크린에 비춰줌으로써 개인별 성경찬송가 소지가 필요 없어지면서 성경읽기의 열심이 점차 식어져가고 있어 이를 염려한 교회는 12월부터 예배 시에 성경, 찬송을 스크린에 띄우지 않기로 하였다. 부득이한 이유로 성경 찬송가를 지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교회2층 현관에 교회 보관용 성경 찬송을 준비해 놓았다.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와 참회의기도모임 신양강좌2부, 11월 25일(수) 오후 8시 20분 702호

신양강좌 2부(부장: 김광신 장로)는 11월 25일(수), 오후 8시 20분 702호에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 집회를 갖는다.

교회력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 새해의 시작이다. 이에 새해를 시작하기 전, 지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알고 모르고 범한 온갖 범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날을 갖고자 한다.

신양강좌 2부 성도들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청년1부 2009년 하반기 총동원전도주일 행사 오늘 오후 3시30분 501호

청년1부는 교회설립 18주년 기념 주일에 맞추어 "섬겨야 합니다"를 주제로 하반기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를 개최한다. '잃은 양 찾기'와 '태신자 전도'를 통하여 청년1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자 하는 행사이다. 만30세 이상 청년들의 많은 참석을 기다린다.

청년1부 하반기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는 오늘 오후 3시30분 501호에서 열리며 4시50분 까지 1부 찬양 및 경건회, 2부 환영과 섬김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교회설립18주년 감사, 추수감사, 장로안수, 선교사 파송감사.
3. 사명자대회 기도 열매 주신 것 감사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험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